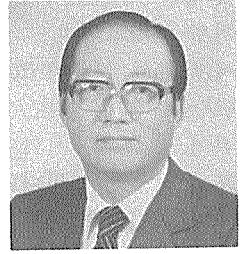


中小企業의 輸出 支援과 新市場으로서의 進出 拡大



韓 鳳 洙 / 大韓貿易振興公社 社長

甲子年 새해를 맞아 業界諸位의 끊임없는 발전과 번영을 삼가 祝願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癸亥年은 國內外的으로 빚어진 大型 慘事들로 어수선한 霧困氣였습니다만 經濟·貿易 側面에서는 매우 括目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던 한 해였습니다.

저희 KOTRA로서도 지난해는 획기적인 機能 拡大와 組織改編을 통해 80年代 國家貿易 振興 機構로서의 KOTRA像에 한발자국 가까이 다가선 한해로서 그 의의를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연초에 中小企業, 輸出代行 專門 綜合商社인 高麗貿易(KOTI)과 대단위 展示 設備를 갖춘 당시 韓國綜合展示場(KOEX)을 각각 經營 參與 또는 흡수 운영함으로써 명실공히 綜合貿易 振興機構로서 體制를 完備하는 한편 업무면에서도 中小企業에 대한 專門의 輸出支援과 國內 展示의 國際化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當公社는 대폭적인 組織改編을 통해 拡大機能의 뒷받침은 물론, 기존 機能을 일부 재조정하여 重化學製品 輸出, 特殊交易, 求償貿易, 國際協力, 商品開發 분야를 각각 프로젝트화하여 추진케 하였습니다.

그 결과 中小企業支援의 전문화, 國內外 展示 基盤의 강화 그리고 각종 프로젝트 사업 수행을 통한 政策目標에의 실질적 접근을 꾀하는 한편, 從來의 방만했던 情報調査 기능은 이를 조정 海外市場 生情報 蒐集에 집중케 되었습니다.

한편 電子工業 분야와 관련, 지난해의 KOTRA 活動을 간략히 소개하면 美國 R.C.A社 등

海外 有名 大企業체의 部品購買展 및 調查團 유치와 시카고 電子部品 常設展示場 및 國內 重化學部品 常設展示場 설치를 통한 部品輸出 基盤의 확충을 시도하였고 서백림電子博覽會, 라스베가스 컴퓨터博覽會 등 電子 專門博覽會 참가와 과나마, 카두나(나이제리아), 말레이시아, 밀라노, 베네주엘라, 킌샤사(자이레), 자카르타, 바그다드(이라크), 테살로니키(그리스) 등 新市場地域의 綜合博覽會 參加, 그리고 트리니다드토바고, 스리랑카, 아이보리코스트 등 미개척지역에의 展示會 개최를 통하여 韓國商品의 市場 多면화에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트한 預算運營과 제한된 인력으로 보다 多數業界에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 속에서 새해에는 한층 더 효과적인 事業運營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해 저희 KOTRA는 지난해 개편된 機能과 組織基盤을 확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海外貿易館을 개편하여 中小企業의 輸出支援과 新市場, 未開拓市場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우선 새로이 주어진 기능을 정립하는 次元에서 첫째 中小企業의 少額少量 輸出業務 추진에 있어 職員의 專門要員化, 去來幹旋 情報의 電算化를 기하여 去來成約의 추진도를 提高하고 각종 國際博覽會의 國內 定期 개최를 정착화하여 展示場의 稼動率을 높이는 한편 常設展示場 入任 中小企業 또는 部品業체에의 지원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求償貿易 事業 部門에서는 착수 첫해인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現業遂行을 금년에는 더욱 積極化할 방침이며 海外 協力事業으로서 습

作投資 및 人力 進出과 僑胞 貿易人 支援 事業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海外 貿易館 改編 방향은 新市場 未開拓 地域에의 進出을 擴大하고 貿易館 인력을 보강하여 이 지역에서의 市場開拓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세째로 新規事業 개발을 積極化함으로써 변화하는 貿易環境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예컨대 기존의 大規模의 海外展示事業 외에도 貿易館 주도하에 현지 中小 輸入商이나 우리 商社 支社들을 組織하여 소규모로 現地博覽會에 참가하여 販賣網 擴大에 기여코자 하며 또한 L.A 夏季올림픽 特需에 대비하여 금년 3, 4月中으로 國內 有望 올림픽 상품을 한자리에 모아 特別展示會를 개최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KOTRA가 그간 꾸준히 추진해 온 特殊地域과의 直交易 실현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 지역에서의 展示活動과 專門交易商의 訪韓 誘致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KOTRA는 금년도에 두 가지의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82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하는 서울國際貿易博覽會(SITRA '84)와 美國 루이지애나 世界博覽會 참가가 그것입니다. 서울國際貿易博覽會는 지난번 開催成果가 예상외로 좋아 隔年制의 定期 開催 事業으로 정착된 것으로 이번에도 期間中(9月 18日~10月 17日) 總 6萬坪 규모에 國內外 1,000個 業體에서 參加, 1萬 2,000名의 바이어 誘致를 통해 輸出 15億弗, 輸入 5億弗의 商談成果 거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世界博覽會는 오는 5월에 시작하여 6개월간 개최되며 KOTRA는 이 期間 韓國館을 設置·運營하여 韓國의 역사, 經濟發展相을 전시하는 한편 특히 '88서울올림픽과 韓國의 觀光資源을 중점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 두가지 행사는 KOTRA 단독의 행사라기 보다는 그 意義와 規模面에서 국가적인 행사이므로 이번에도 業界와 政府機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새해에도 KOTRA는 특히 電子産業의 輸出振興을 위해 기존의 事業體制를 적극 활용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우선 전년도에 開館한 시카고 및 國內 電子部品 常設展示場의 운영을 本軌道에 올려놓는 한편 歐美 有名 電子메이커의 部品 購買展 또는 調查團 誘致活動을 꾸준히 전개하여 電子부품의 海外市場 기반 확보를 위해 立體的 노력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편 海外貿易館을 통해 오는 10월의 第15回 韓國電子展에의 바이어 誘致는 물론 美 西部 電子博覽會, 라스베가스 電子部品博覽會를 비롯 사이프러스, 폴투갈, 터키, 도미니카, 세네갈등의 綜合博覽會에 신규 참가하고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展示會를 개최함으로써 電子製品의 既存市場 심화와 新市場, 未開拓 市場에의 進出 擴大를 꾀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當公社는 求償貿易이나 國際入札, 合作投資 등의 사업을 통하여 電子製品 輸出增大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앞서 말한 SITRA개최를 통해 電子製品의 輸出增大는 물론 先進 첨단기술 導入의 좋은 계기가 마련되리라 予見하고 있습니다. 電子部門의 첨단기술 導入은 또한 當公社의 海外協力 事業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KOTRA는 또한 電子業界를 대표하는 韓國電子工業振興會와의 共同 推進 事業에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夏季電子展 참가나 韓國電子展 개최와 관련 KOTRA는 기존의 協調體制를 더욱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며 이러한 협조를 바탕으로 시카고 및 國內 電子部品 常設展示場의 운영도 그 효율성이 한층 提高되리라 믿습니다.

今年度 電子業界의 발전을 위하여 本人은 특히 電子工業振興會의 활동과 관련하여 몇 가지 提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調查活動의 강화가 중요하겠습니다. 本人은 그간 振興會에서 業界의 基礎資料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刊行物을 많이 펴내고 있음을 눈여겨 보아왔습니다만 새해에는 이러한 활동을 더욱 발전시켜 專門的 마케팅 資料를 많이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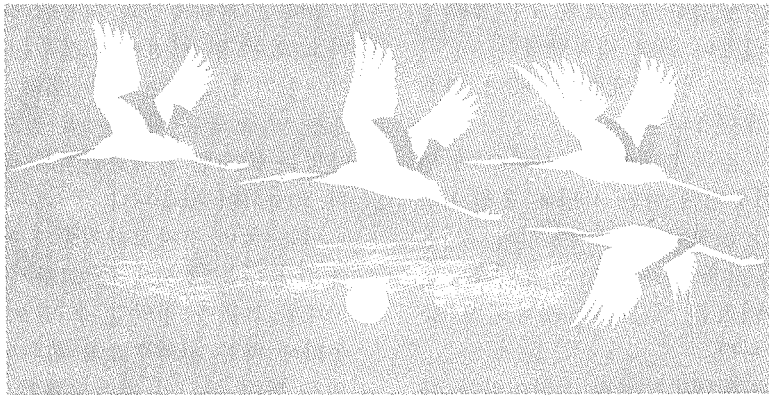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調査活動은 경우에 따라서는 海外의 專門調査機關과의 용역을 통하여 추진할 수 있겠읍니다만 이때 우리 公社는 貿易館을 통한 調査 協調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電子業界에 海外 첨단기술 도입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海外 高級두뇌의 國內誘致를 통한 세미나 또는 워크 샵 개최 등 기존의 여러가지 방안 외에도 對韓合作投資 및 技術導入 窓口로서 振興會의 一貫的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電子製品 輸出의 事後管理 體制가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大企業 次元에서는 자체적으로 After Service 체계를 구축해 나가 고 있으나 自体能力이 부족한 中小企業과 未 開拓 新市場 개척을 위하여 振興會에서 事後管理網 확보를 先導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새해 우리 電子業界의 계속적인 도 약 발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KOTRA 활동에 도 변함없는 지도편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謹 賀 新 年

希望에찬 甲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貴社의 日益繁昌하심을 祈願합니다.

韓國電子工業振興會 任職員 一同